



◇일명 '구봉산'이라고 불리는 속리산 묘봉줄기가 지나가는 모습(위)과 형질 우수한 소나무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 왕실이 설치한 금표(禁標).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16) 속리산 법주사

먼 옛날 완주 땅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소들이 풀을 뜯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다. 잡은 개구리를 버들가지에 꿰어놓고는 툇날이를 하다가 개구리를 깜박 잊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해에 소년이 소를 먹이러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바로 그 개구리가 버들가지에 꿰어진 채 살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큰 슬픔을 깨달은 소년은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집을 나서 산으로 들어갔다.

四覺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

이 이야기는 법주사를 세운 신라 말 진표 율사의 출가기를 각색 해본 것이다.

청황봉을 비롯 아홉개 바위 봉우리 우뚝 '육림선사' 떠올리는 자생 소나무 즐비 두 그루의 전나무는 사찰조경 품격 높이고 기와 파편 이용한 토담은 재황용의 좋은 예

한 조형적 체계에 따라 지어지고 배치되었다. 가람배치의 중심축에 따라 금강문-천왕문-팔상전-석등-대웅보전이 자리한다. 천왕문 앞에는 두 그루의 잘 자란 전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런 풍경은 춘천 오봉산 청평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두 그루의 전나무는 법주사 가람배치의 중심축과 절묘한 질서를 보여준다. 단 두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 내는 사찰조경의 품격이 뛰어나다. 식생이 다양하고 숲이 울창하다고 해서 조경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다. 한 두 그루의 나무라도 주위의 전각들과 조화되면 멋진 조경을 이루 어낸다.

천왕문 뒤에 팔상전이 거대한 목탑으로 서 있다. 우리의 석탑과 목탑은 그 모양새가 나무를 닮았다. 팔상전은 잘 자란 한 그루의 후덕한 나무이다.

절에 와서는 담장도 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법주사에서는 부서진 기와조각들을 주위 모아 황토에 섞어서 담장을 쌓은 곳이 많다. 폐자재의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예가 된다. 가을이 되어 붉게 단풍든 담장이 토담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길가에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열너머목이 서 있다. 자두 나무와 사촌인 열너머목은 삼국시대에 스님들이 과수용으로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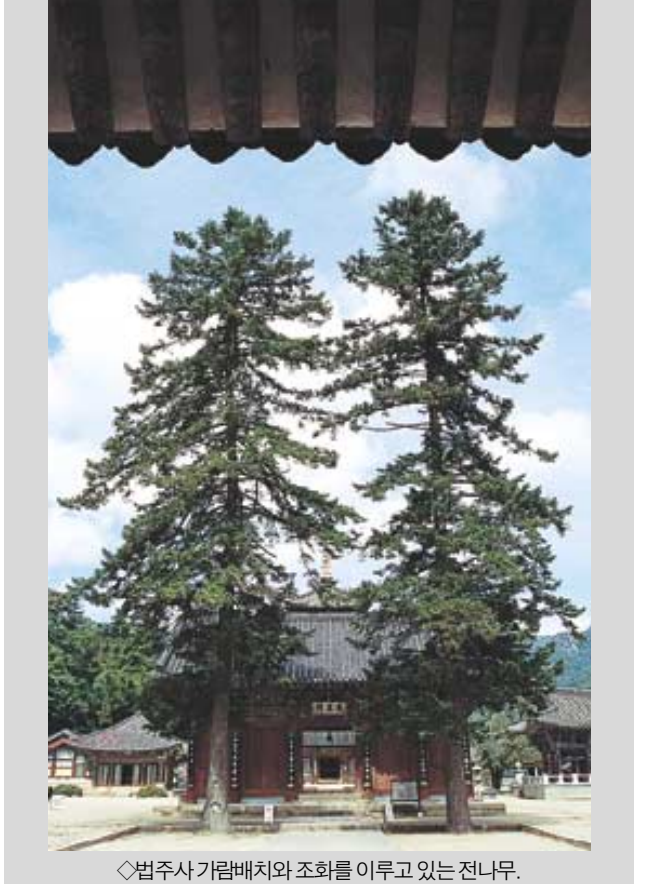
들여왔다. 법주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여러 암자에서 관찰되는 열너머목도 모두 그 후계목일 것이며, 강원도와 충북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열너머목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난봄에 발견된 희귀종 황금소나무가 개울 건너 중턱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삼척의 황금소나무는 관광객들의 등쌀에 말라죽은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지만, 이 황금소나무는 다행히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운 개울 건너에 자리해 있다. 또 삼척의 황금소나무와는 달리 홀로 있지 않고, 주위의 다양한 나무들과 함께 어울려 숲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주사의 지표종으로 삼을 말한다.

법주사와 속리산의 소나무는 중부내륙형 소나무 가운데 형질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점찍고 금표(禁標)까지 박아놓았다. 금표는 세심정 가는 길에 지금도 박혀 있다.

식생은 문장대쪽보다 천황봉쪽 계곡이 더 다양하다. 가는장구채, 금강제비꽃, 긴금강분취, 등대시호, 매화말발도리, 모데미풀, 속리기린초, 참평귀나무 등의 초본류와 천연기념물인 망개나무를 비롯하여 녹다래나무, 참갈퀴나무 등의 목본들은 속리산의 식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고유종들이다.

얼마 전에 발견된 고란초 군락지도 천황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고란초는 환경부가 희귀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단엽식물(일엽초)이다. 제주도, 울릉도 등 제한된 청정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양산 내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산중사찰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법주사 가람배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나무.

법주사 주차장에 내려 절로 들어가다 보면 중주 달천의 상류인 속리천 물결이 다리 아래로 지나간다. 이 물결은 차안과 피안의 세계를 가른다.

피안의 다리를 건너면 멋진 소나무들이 무리지어 잔디밭 위에서 서서 내방객들을 맞고 있다. 소나무는 대중적 가치도 높지만, 조경수로도 품격이 다른 나무를 뛰어넘는다.

오리숲에는 참나무를 중심으로 30여종의 활엽수들이 노송들과 함께 터널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노의장을 과시하고 있는 갈참나무 군락이다. 오리숲 왼쪽으로는 속리천 맑은 물이 흐른다.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면 멀리 속리산 묘봉 줄기가 풍광 좋게 지나고 있다. 속리산은 해발 1,058m의 천황봉을 비롯하여 비로봉, 문수봉, 관음봉 등 아홉 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명 구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경내에는 숲향이 그득하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면 운통 숲속이다. 소나무들은 속리산 정상 능선에서부터 바위가 노출된 능선들을 따라 물 흘러내리듯이 법주사까지 내려와 있다.

법주사의 숲속을 보면 중국 운문종의 동산선사라는 분이 떠오른다. 그는 절 뒷산에 1만주나 되는 소나무를 심어 후인들이 육림선사라고 불렀다. 그는 소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금강경> 한 편을 독송했다고 전해진다. 후회들은 그 뒷산을 만송령이라고 불렀다.

법주사 주변의 소나무는 식재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생이다. 법주사 대중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네 절집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우주관과 사각(四覺) : 不覺-相似覺-隨分覺-究竟覺의 수행관에 입각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대장전·윤장대 보수, 목각탱·석탑·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린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달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제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증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극묘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호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훈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비로운 가르침을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윤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운누리에 불행이 두루 피지 않기를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윤력은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앙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윤장대 보수, 목각탱·석탑·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수렴성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해가 구축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달일음은 흔찮아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협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할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3호)

윤장대(보물 제684호)

목각탱(보물 제989호)

석탑(보물 제729호)

석등(보물 제143호)

장경각

관세음

경녕개

만등불

용문사 소시는 길

백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전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송송채(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대구) : 중앙고속도로 ⇒ 민등 ⇒ 예천IC

삼사순례도

경원호수 (10분 소요) | 용문사 (5분 소요) | 부석사 | 청명사 | 불정사

10분 소요 | 30분 소요 | 50분 소요 | 30분 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 명성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민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